

수유의 신화학: 마야와 마리아

授乳の神話学: マヤとマリア

- 일시: 2016년 3월 24일(목) 14:00~16:30
- 장소: 고려대학교 청산·MK문화관 원형강의실(203호)
- 주최: 고려대학교 BK21 PLUS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고미네 가즈아키 小峯和明

와세다대학 제일문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를 일본문학을 전공하였다. 문학박사. 국문학연구자료관 문헌자료부 조교수를 거쳐 릿쿄대학 문학부 교수를 지냈다. 현재 같은 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일본 중세문학, 동아시아설화 비교연구를 주 테마로 하여, 모노가타리(物語)·설화·류큐 문학·법회문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신라수이전』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등 한국의 설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저서로 『今昔物語集の形成と構造』(笠間書院, 1985), 『説話の森 : 天狗・盗賊・異形の道化』(大修館書店, 1991)[이시준 역, 『일본 설화문학의 세계』(소화, 2009)], 『院政期文学論』(笠間書院, 2006), 『中世法会文芸論』(笠間書院, 2009), 역서로 『新日本古典文学大系 今昔物語集』(岩波書店, 1994-1999), 『新羅殊異伝』(平凡社東洋文庫, 2011) 등이 있다.

수유의 신화학-마야와 마리아

어머니라는 분-마야와 마리아

오래전부터 궁금해서, 여기저기의 강연에서 이야기하거나 쓰거나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그중 하나가 우연하게도 일치하는 마야와 마리아의 授乳圖이다. 말할 것도 없이 마야는 석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신앙된다.

예전에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에 마리아가 아기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이른바 聖母子像이 몹시도 많아, 궁금한 마음에 하나하나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 카톨릭교권에서는 특히 마리아 신앙은 압도적이어서, 기층의 여성신앙의 계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머니와 자식의 영원한 숙명과 같은 것이 거기에 깊이 새겨져 있으리라. 사람은 누구든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거기에 자기 존재의 始原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리라. 특히 어머니와 자식의 연결을 상징하는 것이 授乳이다. 젖은 인간이 최초로 입으로 먹는 것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마야의 수유

마야와 마리아의 수유도는 수유의 대상이 모두 아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이하게도 우연히 일치한다. 마야의 수유 상대는 아들 석가이기는 하지만 이미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까지 멀리 않은 정도의 고령이다. 마야는 석가를 낳고 7일 만에 죽어 천상계에서 다시 태어났으므로, 성장 후의 석가를 알지 못하였다. 한편 마리아의 수유 상대는 12세기의 성인 베르나르두스(Bernardus Claraevallensis, 1090-1153)이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 베르나르두스일까. 우선은 마야를 둘러싼 설화부터 보도록 하자.

『今昔物語集(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3 제2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천상계에서 다시 태어난 마야를 교화하려 석가는 제자를 데리고 도리천에 오른다. 歡喜園의 波利質多羅樹(圓生樹) 아래에서, 文殊를 사자로 보내 마야를 불러오도록 한다. 그러자 마야는 석가의 전언을 들었을 뿐인데 젖이 저절로 밖으로 나왔다. “만약 내가 사바세계에서 낳은 아들이시라면, 이 젖은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겠지요.”라고 하고는 두 젖을 짜자, 젖이 멀리 날아가 석가의 입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마야는 이것을 보고서 기뻐하였으며 세계가 진동하였다. 마야는 석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석가의 설법을 듣고 해탈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석가는 그대로 3개월을 머물렀는데, 이윽고 열반에 가까웠음을 보이고는 하계로 내려간다. 열반에 얹힌 전단계의 佛典이야기로 빼놓을 수 없는 일화가 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서 궁금한 것은 마야와 석가의 위치관계, 거리감이다. 마야는 도리천의 궁전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젖을 날려 보냈을 것이고 다른 쪽의 석가는 원생수 아래에 있었으므로,

두 사람 사이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마야의 젖은 먼 거리를 뿔어져 날아간 것이 된다. 바로, 젖이 어머니와 자식을 연결하여 실제 친자의 증거와 유대가 되는, 극적인 이야기의 취향이다. 마야가 아들을 의식하자마자 젖이 저절로 나왔다는 데에 모성의 극치가 드러난 화제라고 할 수 있다.

법회의 장에서

위 이야기의 출처는 『摩訶摩耶經』이며, 불전 경전을 집성하여 분류한 책인 『釋迦譜』에도 인용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법회 설법의 권위였던 安居院(아구이)流의 대표적인 唱導書¹⁾ 『言泉集』에 나오므로, 법회의 장에서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言泉集』은 법회의 설법에서 사용되는 소형 책자본(『說草』라고도 한다)이다. 표지에는 “孝養句 爲亡母”이라고 쓰여 있으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追善供養 등에서 낭송되는 願文의 대구를 뽑아낸 것과 경전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회의 장에 응하여 여러 가지로 재활용되는 간편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悲母之恩’으로서 『心地觀經』에서 母十德이 인용되고, 그 뒤에 ‘佛果猶母子緣不忘文’으로서 『摩訶摩耶經』에서 문제의 한 구절이 인용된다. 내용은 앞의 『今昔物語集』과 바뀌지 않는 데, 『摩訶摩耶經』에서는 문수가 마야의 곁으로 가서 석가의 교화 의지를 전할 때와, 마야의 젖을 석가가 마신 것을 확인하고 석가의 곁으로 기뻐하며 갈 때, 偈를 읊조린다. 계란 경전에 나오는 시인데, 본래는 노래되는 것이며, 경문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보충하여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래의 장엄한 울림이 보다 드라마틱한 고양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들게 하였음에 틀림없다. 청중은 追善의 대상인 돌아가신 어머니와 마야를 오버랩하여, 감탄과 비탄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중세의 창도서의 하나, 『金玉要集』 권3 「悲母事」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다. 역시 「摩耶經云」으로서 마야의 수유 부분이 인용되어 있다. 어머니와 자식의 유대관계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고사가 되어 있었다.

젖의 대가

유방과 수유를 둘러싼 화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9세기의 불교설화집으로서 유명한 『日本靈異記』에도 적지 않게 보인다. 大和(야마토)의 瞻保(미야스)라는 자가 어머니를 부양하지도 않고, 꾸어준 쌀을 어머니에게서 냉혹하게도 돌려받으려 하였다. 이를 불쌍히 여긴 주위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만 어머니는 비탄하며 가슴을 벌리고 유방을 내어 울며불며,

吾れまた乳の直(あたい)を徴(はた)らむ。母子の道、今日に絶ゆ。天知る、地知る、悲しきかな。痛きかな。

나는 아직 젖 값을 징수할 수 있다. 母子의 도가 오늘에 끊어졌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알

1) 唱導는 불교의 교리를 말하여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일본에서는 헤이안 후기에 박자나 억양을 넣어 말하는 종교적 예술로 발전하여 민중교화에 이용되었다.

도다. 슬프도다. 애통하도다.

라고 호소한다. 아들은 돌연 문서를 태워버리고 정신이 돌아왔는데, 집은 화재를 만나 끝내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죽었다고 한다(上・二三). “너를 길러낸 젖의 대가를 치르라”고까지 말하는 어머니의 절규는 가슴을 때리는 것이 있다. 이 ‘젖 값’은 자식을 길러낸 대가를 치르라는 것인데, 그것이 젖으로 집약되는 것에 모자의 깊은 인연을 알게 해주는 것이리라.

앞의 『大乘心地觀經』 제3에 의하면, 아기가 먹는 어미의 젖의 양은 「百八十斛」이라고 한다. 이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百石贊嘆’의 노래와도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寂林이라는 승려가 본 꿈에, 살찌고 옷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두 유방이 부어서 가마와 같이 처지고 젖에서 고름이 나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자를 만났다. 사정을 물어보니, 邪淫 때문에 유아를 버려서 젖을 주지 않은 과보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꿈에서 깨어 그 집을 찾아 가보니 과연 그대로였다. 아이들은 寂林을 導師로 供養을 하였고, 어머니는 구제되었다고 한다(下・一六)

혹은 아들이 임종을 맞이하였을 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목숨이 늘어난다고 하여, 어머니가 젖을 먹이자 “아, 어머니의 맛있는 젖을 버리고 나는 죽고 마는 것인가”라고 하며 숨을 거둔다(中・二).

이들 일련의 설화는 어머니와 자식을 둘러싼 숙업과 인연이 테마가 되어 있으며, 한쪽은 어머니라는 업에 의해, 다른 한쪽은 자식의 악업이 과보를 받는 형태로, ‘맛있는 젖’이 키워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법회의 장에서 이들 설화가 이야기되었음에 틀림없으며, 청중들의 비탄과 감탄의 눈물을 자아내었을 것이다. 어머니와 자식의 숙업이 젖으로 상징되어,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침투하였으리라 상상할 수 있다.

또한 같은 『日本靈異記』에서 防人 吉志火麻呂(기시노 히마로)가 아내를 그리워한 나머지 동행했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의 상을 치른다는 핑계로 군역을 면제받으려 획책하고는 어머니를 살해하려 하자, 대지가 갈라져 땅속으로 떨어지고 그것을 멈추려 한 어머니의 손에는 아들의 머리 상투가 남았다는 이야기(中・三)는, 후세에 安居院의 唱導世界에서 이야기되고, 叡山文庫本과 大谷本 『言泉集』에도 이야기 되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는 대사에,

가슴에는 유방이 있으니 네가 백팔십 석의 젖을 마신 곳이다. 배는 네가 아홉 달 이백칠십 일을 머문 곳이다. 다리로 말하면 너를 기르기 위해 동서로 분주히 구했던 다리이다. 손으로 말하면 따뜻한 물을 부어 머리를 어루만지던 손이다.

그런 어미를 너는 어찌하여 죽이려 하는 것인가 물었다, 라고 되어 있다. 앞의 『大乘心地觀經』에서 말한 아기가 먹는 모유의 양이 ‘百八十斛’라고 한 것과 공통된다. 原話인 『日本靈異記』에는 없는 부분이며, 법회의 장에서 보다 청중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도록 집어넣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百石賛嘆

아마도 나라(奈良)시대에는 ‘百石賛嘆(모모사카산탄)’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는 가요가 널리 유행하였던 듯한데, 9세기의 『東大寺諷誦文稿』에,

百石云, 八十石云, 乳房之恩, 一モ未報.(229~230行)

百石이라고 말하고 八十이라고 말하네. 乳房의 은혜에 아직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였네.

라고 되어 있는 단편적인 기사가 문헌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는 『拾遺集』 권20 「哀傷」에 보이는,

百くさに八十くさそへて給ひてし乳房の報ひ今日ぞ我がする(一三四七)

백 석에 팔십 석을 더해 합해 주신 유방(어머니)에 대한 보답을 오늘 나는 하리.

와 같은 부류의 노래를 근거로 하였음에 틀림없다. 이 노래는 ‘백 석에 팔십 석을 보태 어머니에게서 받은 젖으로 길러주신 어머니에 대한 보은을 오늘 이 곳에서 드립시다.’라는 내용으로, 行基(교키)보살이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가 자식을 기를 적에 백팔십 석의 젖을 소비하였다고 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으로, 통칭 ‘百石賛嘆’이라 불린다(『日本歌謠集成』 「古讃集」). 백팔십 석의 전거는 『中陰經』과 『大乘心地觀經』이라고 생각되는데, 법회의 장 등에서 불리는 노래로서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듯하다. 작자는 光明(고묘)황후라는 설도 있어, 일정하지 않다. 집단으로 노래되는 和讃 등의 가요로 보아야 할 듯하며, 行基나 황후 작자설은 이후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日本歌謠集成』에는 比叡山(히에이잔) 延暦寺(엔랴쿠지)와 高野山(고야산)의 전래도 인용되어 있어, 종파에 상관없이 널리 노래되고 있었다. 名古屋(나고야)의 眞福寺(신후쿠지)에는 ‘百石賛嘆盤色調中’이라는 조각 종이가 있는데, 노래 뒤에 구전을 인용하여 ‘行基菩薩偽作’이라고 되어 있으며, 『五道受生經』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聲明根本’·‘深々秘々究終’이라고 나온다. ‘盤色調’는 雅楽 등의 음계 이름이므로 그러한 음악에 합하여 노래되는 중요한 聲明으로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内親王(나이신노)에게 헌상된 불교입문서 『三寶繪』下 「灌佛」에도 이 노래가 보이는데,

百石に八十石添へてたまへてし 乳房の報い今日せずは いつか我がせん

年はをつ さよはへにつつ

백 석에 팔십 석을 보태 주시니 유방의 보은을 오늘 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하리오.

라고 되어 있다. ‘오늘 나는 하리’가 ‘오늘 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하리오’로 바뀌어 있고, 여기에 ‘年はをつ さよはへにつつ’라는 다소 의미불명의 어구가 이어진다. 『古讃集』에 보이는 比叡산의 사례에는 “今日せでは 何かはすべき 年も経ぬべし さ代も経ぬべし”(오늘 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으리. 세월도 지나고 말 것이며, 시절도 흐르고 말리라)라고 되어 있어, 이 쪽이 이해하기 쉽다. 異傳이 많이 나올 정도로 널리 유포되어 노래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하겠다.

『三寶繪』가 佛事의 연중행사인 ‘灌佛會’에서 이 노래를 들고 있는 것은 달리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데, 역시 그 장소에서 노래되었던 때문일 것이다. ‘灌佛會’는 4월 초파일 석가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은덕을 흠모하는 불사로서 사원에서는 ‘佛生會’라고 불리는 것으로, 궁중이나 귀족사회에서 이루어진 의례를 가리킨다고 한다. 여기서도 궁중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대신으로부터 궁정의 女房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탄생불의 모조山形에 물을 붓는 灌頂을 하고, 석가의 탄생과 그 어머니 마야부인을 찬탄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마야에게 바친 노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의 깊은 노고와 恩愛를 통절하게 노래에 담아, 백팔십 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량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당시 법회의 장을 매개로 널리 유포되어, 노래되었다는 점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拾遺集』에 실린 것은 그 정도로 널리 유포되었던 때문이기도 하고, 行基의 이름을 씌움으로써 가요가 아니라 和歌(와가)로서 격상하려고 한 경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그렇게 전승되고 있었던 듯하다.

덧붙여 노래의 ‘百石’은 ‘ももさか(모모사카)’라고 읽는데, ‘ももさく(모모사쿠)’·‘ももくさ(모모쿠사)’ 등과 같이 읽는 방법도 있었다. 노래가 전승되던 과정에서 점차 의미도 알 수 없게 된 것일까.

『萬葉集』 권11 “ももさかの舟かくり入る八占いさし母はとふともその名はのらじ(백 석의 배가 들어오는 항구에서 점을 쳐서, 어머니가 묻더라도 그 이름은 말하지 않으리. 2411) 등과 비슷한 만요적인 가요에 상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적의 수유

백석찬탄이 『東大寺諷誦文稿』에 머무르지 않고, 법회의 창도세계에서 인기였던 사실은 일일이 인용하지 않겠지만, 그 후 安居院의 『言泉集』 亡母帖, 『澄憲作文集』 33 「父母報恩」, 『貞慶表白集』 上・21 「悲母三五日」을 비롯하여 『金玉要集』 「悲母事」 등등, 중세의 법회창도 자료군에 빈번히 보이는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다. 西行(사이교)에게 가탁된 불교설화 『撰集抄』 4・1, 9・4 등에도

十月身を苦しめ百八十萬石の乳をすひて、朝夕胸の間をつつき、久しく膝の上にあそびて、
열 달을 어머니의 몸을 고생시키고, 백팔십만 석의 젖을 마셔, 아침저녁으로 가슴을 쏘고,
오랫동안 무릎 위에서 노닐어,

라고 보여, 어머니의 은혜를 표현하는 정형으로서 習熟되었음을 알 수 있다. 孝養을 말하는 경전으로 동아시아에서 널리 퍼진 『父母恩重經』에도,

計飲母乳，八斛四升，千日提携，遮蓋塵垢，推乾就濕，嚙苦吐甘。

母乃爲兒，屈身下就，長舒兩手，拭除不淨，吹噓其口，以乳與之，含乳看母，嚙嚙其聲，母見

兒喜, 兒見母喜, 二情思想, 慈愛親重, 情親相念, 莫過於此.

모유를 먹는 양을 헤아려 보면 8斛 4斗이며, 천 일 동안 손을 이끌고 더러운 먼지를 막아 주시며, 마른자리를 미루고 진자리로 가시며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신다.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몸을 굽혀 아래로 가시고, 두 손을 길게 뻗어 불결한 것을 털어 없애신다. 입으로 심호흡하시며 젖을 아이에게 주시며, 젖을 입에 머금고서 어머니를 보면 그 소리를 즐겁게 한다. 어머니는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아기는 어머니를 보고 기뻐하여, 두 마음이 애뜻하여 자애롭고 친애하니, 서로 사랑하고 그리는 마음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등과 같은 내용이 보여, 어머니와 자식의 애정의 증거로서 젖이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는 백팔십 석이 ‘八斛四斗’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백석찬탄의 노래와 밀접한지 어떤지는 우선 두고서, 수유를 둘러싼 기담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화제가 있으므로, 살펴보고자 한다.

『今昔物語集』 권19 제43화에서는 女御(노고, 후궁)의 시녀였던 여자가 젊어서는 풍류 있고 다정하였는데, 후에 어느 집안의 유모가 되어 기른 아이가 고귀한 승려가 되자, 불심 독실하게 『법화경』을 신봉하고 여러 법회에 聽聞하였다. 어느 날 법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를 만나 어느 저택의 문 앞에서 비를 피하였는데, 황폐한 작은 집에서 어머니와 자식이 울고 있었다. 이유를 묻자, 작년과 올해 이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양육하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유모는 차마 볼 수 없어 아이 한 명을 맡아주기로 한다. 하지만 맡아서 기르기로 하기는 했으나 아무 방도가 없어, 평소 신봉하고 있던 『법화경』에 기도를 하자 25년이나 끊어졌던 젖이 돌연 나오고 젖이 쏟아져 나와, 결국 아이를 기를 수 있었다고 한다.

노파가 아기를 돕기 위해 『법화경』에 기도하자 감응이 있어서 젖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일종의 법화영험담이다. 이 설화는 같은 종류의 설화가 보이지 않아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유포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역시 법회의 장에서의 설교에 알맞은 제재라고 생각된다. 노파가 독실한 불심으로 여러 법회에 청문하였다고 하는 것도 현장에 모인 청중들의 관심을 끌기 쉬운 설정이며, 법화영험에 그치지 않고 젖을 둘러싼 화제로서 백석찬탄 등에도 접속시켜 이야기될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이 아닐까.

중국 효자전의 대표 『二十四孝』는 일본과 동아시아에 널리 유포되었는데, 여기서도 수유의 화제가 보인다. 일본의 お伽草子(오토기조시) 『二十四孝』로 제시하면, 唐夫人이 자신의 딸에게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수유한다는 이야기이다. 효행도 여기서 극치에 달한다고 할까, 자식에 대한 수유에서 노파에 대한 수유라는 굴절된 반전행위이며, 극단적인 예를 제시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덕목과 교훈을 말하는 정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 걸음만 발을 헛디뎈다고 그로테스크에도 가까운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 모티프라고 할 수 있을까. 혹은 노파는 유아의 반전일뿐인 것인지, 늙음이 어림으로 회귀해 가는 것의 상징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지.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설화의 세계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거기에 생각대로 되지 않

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설화야말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곳곳이 살아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야 할까, 설화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 질곡을 순식간에 해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험과 기적의 담화를 단지 황당무계하거나 하잘것없는 조작이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며 업신여기는 관점은 사람들의 살아갈 마음과 바램, 기원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이해를 못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어느 시대·사회에서도 설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젓을 날려 보낸 부인들-蓮華夫人과 鹿女夫人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수유로 증명되는, 같은 모티프는 『今昔物語集』 권5 제6화에도 나온다. 般沙羅王의 왕후가 5백 개의 알을 낳은 탓에, 부끄러워한 왕후가 물리 상자에 넣어 恒伽河(갠지스강)에 흘려보내고 만다. 그것을 주워서 이웃 나라의 왕이 가져가자 알에서 5백 명의 왕자가 태어나 용맹스러운 젊은이로 성장하여 원래의 나라를 공격한다. 성을 포위당한 반사라왕은 궁지에 빠지는데, 왕후는 모두 자신의 자식임에 틀림없다고 사정을 말하고는 높은 누대에 올라 5백 명의 왕자를 향해 경위를 말하였다. 친자의 증명이라는 듯 젓이 오백 왕자들을 향해 날아가 모든 왕자의 입으로 들어갔다. 왕자들은 진실을 알고 퇴각하였으며 그 후 두 나라는 친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俱舍論記』이라고 여겨지는데, 『雜寶藏經』의 연화부인과 녹녀부인의 이야기도 변형되고, 『六度集經』·『經律異相』 등에도 인용되고, 玄奘三藏의 『大唐西域記』에도 보인다.

역시 젓이 수백·천 인의 입에 들어갔다고 하는 모티프의 기이함이 주목을 끌었던 것 같다. 연화부인과 녹녀부인의 이야기는 거의 같은 이야기의 異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깊은 산속에서 사슴이 仙人의 오줌을 마시고 임신을 하여, 딸을 낳자 선인이 길렀다. 사냥 나온 왕이 그녀의 발자국이 연꽃이 되는 것을 좇아 행방을 알아내어 왕비로 맞이하였다. 부인이 5백의 알을 낳은 탓에 강물에 흘려보내었는데, 성장하여 무인이 되어 공격해 오지만, 부인이 젓을 날려 보내자 각각의 입으로 들어가 모자 관계임이 증명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녹녀부인에서는 자식이 천 명의 수가 된다. 젓이 천 줄기로 되어 솟아났다고 하므로, 무시무시한 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화제를 좋아하여 가지가지로 전해 내려왔음을 엿보게 한다.

일본에서는 『寶物集』 권1 등에도 보이는데, 무엇이 보물인가라는 의론에서 아이야말로 보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예증으로서 거론된다. 설화의 개요에서 언급한 후 “般舍羅がかいごは、ついに母に歸し、安族国の商人はふたたび父を人になしき(반사라의 알은 마침내 어머니에게 돌아왔고, 안족국의 상인은 다시 아버지를 사람으로 되게 하였다)”라고 하여 거의 成語화된 형태로 인용되어 있다. 전자에서 말하는 ‘かいご(가이고)’는 알을 의미하며, 『今昔物語集』과 공통된 이야기를 가리킨다고 보아 틀림이 없다. 『今昔物語集』에서는 처음부터 5백의 알을 낳지만 『寶物集』에서는 5백 앞의 연꽃으로, 그 앞마다 5백의 알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왕후

가 높은 누대에 올라 인연을 말하고 젖을 날려 보내는 설정은 똑같은데, 이야기의 드라마성이 가장 고조되는 절정이라고 할 만한 장면으로서 청중과 독자를 매혹시켰을 것이다.

후자는 安息國의 상인이 아버지를 구한 이야기일까. 어찌되었든 성어와 같이 요약될 정도로 이 이야기는 법회 등의 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던 사실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般舍羅國의 화제에는 『雜寶藏經』에 보이는 연화부인과 녹녀부인과 같이 사슴의 오줌을 마셔서 임신하는 모티프는 보이지 않는다. 『今昔物語集』의 이 이야기의 前話(권5·5)가 波羅奈國의 鹿母夫人의 화제이며, 이른바 사슴에 얽힌 전반과 수유의 후반을 분리하여 별개의 이야기로 독립시킨 형태로 되어 있다. 녹모부인의 이야기는 『報恩經』계라고 여겨진다. 이들이 앞뒤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것에 어떠한 機緣을 생각해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까.

한반도의 사례

이들 일련의 화제가 한반도에도 전해져 있던 사실을 조은애 씨가 지적하였다. 이에 의하면 첫 사례는 15세기 조선왕조의 불전으로서 초기의 한자·한글 간본으로서도 착목되는 『釋譜詳節』로, 권11에 보인다. 석가가 마야를 교화하기 위해 천상계로 간 화제와 관련하여 두 사람의 전생담으로서 忍辱太子의 본생담과 녹모부인의 설화가 인용된다. 이는 『報恩經』에 의하므로, 수유담은 보이지 않는다. 이하, 1727년의 「廣法寺事蹟碑銘」, 1837년의 『平壤續誌』 「雜誌」, 1765년 이전의 『輿地圖書』 「古跡」, 1820년 이후의 『安州牧邑誌』 등이 소개되는데, 후반의 모티프를 가지는 것은 후자의 두 사례이다. 모두 ‘鹿足夫人’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후자의 두 사례는 거의 같아서, 태어난 아이는 12명, 수유와 동시에 모자 관계의 증명이 되는, 사슴의 발자국이 버선과 일치하는 모티프에서도 공통된다. 『여지도서』에서는 고려, 『안주목읍지』에는 고구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도 十二三川千野의 지명기원담으로 되어 있다.

조은애의 씨의 논문에는 다시 1919년 三輪環(미와 다마키)의 『전설의 조선(伝説の朝鮮)』과 1984년의 『한국구비문학대계』 등 구비전승의 사례도 검토되어 있다. 三輪의 저서는 식민지 시대에 채록, 일본어로 간행된 것으로, 세 종류의 異傳이 소개되어 있다. 각각 앞에서 인용한 전근대 문헌에 대응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였지만, 아이의 수는 7명, 9명, 12명, 천 명으로 제각각이며, 수유 모티프가 있는 것 세 사례, 사슴 발과 버선이 꼭 맞는 모티프는 두 사례, 頭陀寺과 淸掌川, 十二三千平野 등의 유래담으로 되어 있으며, 전쟁의 상대국은 중국이 태반, 왕후는 동명왕의 왕비로 되어 있는 것 두 사례로 되어 있어 차이가 보인다.

종래 한국의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시대의 『석보상절』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사례만으로 검증을 하였고, 불전 그 자체의 다양한 변용이나 일본의 사례가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점이 조은애 씨의 논문에서 지적되었다. 거꾸로 말하면 일본에서도 柳田國男(야나기타 구니오)나 尾川孝太郎(하야카와 고타로) 등에 의해 구비문에 측면에서의 ‘사슴과 버선’ 등의 모티프가 착목되기는 하였지만, 한반도의 사례는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동아시아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다시금 요구된다고 하겠다.

『釋迦の本地(사카노혼지)』의 삽화

여기서 다시 마야의 수유로 돌아가면, 일본의 불전 이야기의 대표작 お伽草子(오토기조시)의 『釋迦の本地』에서도 이야기되고, 그림 두루마리 등에 극적으로 회화화된다. 『釋迦の本地』에서는, 도리천에 올라간 석가는 수미산 정상에 원생수에서 善法堂으로 들어가 있다. 이미 마야는 제석천의 황후가 되어 있었으며, 문수가 아뢰자 5백 명의 天人을 따라 대면한다. 선법당이 대면의 무대였다. 하지만 석가가 제자를 데리고 와 24명이 있었으므로, 마야는 누가 자신의 아들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석가는 젓을 날려 보내 입으로 들어간 자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대답한다. 과연 젓이 ‘흰 실을 잡아당긴 듯이’ 날아가 석가의 입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출처인 『摩耶經』에는 젓은 ‘白蓮華’와 같다고 형용되며, 마야가 주체적으로 젓을 날려 보낸 데 비해 『釋迦の本地』에는 석가 쪽이 주도권을 쥐고 마야에게 제언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 『釋迦の本地』에는 여러 판본에서 이 장면이 가지가지로 회화화되어 있어 흥미롭다. 이미 지적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문제는 마야와 석가의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인데, 양자가 좌우 어떠한 형태로 마주보고 있는지, 높낮이 차가 있는지 없는지, 두 사람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등등의 대비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양문고나 대영박물관의 삽도본 등에는 거의 병행해서 대면·대좌하고 있기 때문에, 젓의 실이 직선적으로 날아가는 데 비해, 새로 나온 릿교대학본에는 양자가 있는 건물이 나뉘어 있으며 마야가 보다 높은 곳에서 젓을 날려 보내 석가가 있는 곳에 이르는 형태로, 젓의 선도 굽어서 마치 호스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젓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묘사하는 경우와 애매한 것이 있는데, 릿교본은 보다 친자의 증명으로서의 표출이 의식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유의 도상학

이 장면에서 가장 극적인 구도는 역시 앞에 소개한 金刀平羅宮(고토히라구)의 그림 두루마리일 것이다. 원편의 약간 높은 위치에서, 게다가 구름을 타고서, 오른편 아래에 있는 석가를 겨냥해 젓이 날아간다. 그 젓의 하얀 선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보기 좋게 석가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석가들은 서 있는 모습이다. 대영박물관의 그림 두루마리도 좌우가 바뀐 구도로 되어 있는데, 역시 마야는 구름을 타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앉아 있는 석가를 향해 있다. 석가들은 앉아 있다. 서 있는 모습 쪽이 극적인 효과를 쉽게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받는다.

석가와 마야의 위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화면을 보는 사람의 시점이 석가쪽인지 마야 쪽인지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그림 두루마리는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아가므로 보는 사람의 시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여, 자연히 오른쪽에 있는 인물의 시점과 같아지게 된다. 요컨대 문장의 세로쓰기에 대응되어 있다. 오른쪽에 석가가 있으면 보는 사람은 석가의 시점에 서서 왼쪽에서 젓이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받을까 라는 관점이 되고, 마야가 오른쪽에 있으면 보는 사람은 젓이 어디로 날아가는가를 확인하는 관점이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림을 보는 시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좌우 위치관계가 어떠하더

라도 다시 마야의 젓이 나온 곳에서 석가의 입에 들어가는 곳까지를 확인하는, 젓의 행방을 고쳐 찾는 행위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유방을 드러낸 마야의 모습이 이 이야기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회화화되어,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釋迦の本地』가 많은 불전 중에서도 특히 많이 제작된 것도 그러한 그림에 대한 높은 관심에 요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비해 중국의 『釋氏源流』에는 ‘爲母說法’의 단락이 있어, 『摩耶經』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삽화의 도판대로 젓이 날아가는 구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화면 중앙 좌측에 석가가 원생수 아래에서 결과부좌하여 빛을 발하고, 오른쪽 아래에서 마야가 서서 석가의 사자 문수가 하는 말을 듣는 구도이다. 마야의 수유의 회화화는 타부였던 듯하여, 『釋迦の本地』와의 차이는 크다. 이것은 이야기의 내용과 줄거리 그 자체가享受到에 맞추어 저절로 변해가는 일본의 불전과, 불전의 규범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는 중국과 조선의 불전의 대비에 그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아의 수유

젓을 날려 보내는 부인의 모티프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상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 베르나르두스였다. 그는 12세기 후반의 프랑스 태생의 시토파(Citeaux派) 신학자로, 간소함을 중시하고 교회분열소동을 수습하는 등 교회정치에 힘을 발휘하였으며,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도 관련이 깊었다. 그는 열렬한 마리아의 숭배자로, 마리아를 幻視하고 마리아에게서 떨어진 젓이 입술을 적서 영력을 얻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 13세기가 되면 회화화된다. ‘성 베르나르두스의 幻視’라는 제목의 회화도 제작되는데, 동시에 수유도도 그려지게 된다. 이것도 시대를 관통하여 끊임없이 그려진 듯하다.

작품 예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추측조차 할 수 없지만, 알 수 있었던 몇몇 예로 보면, 대다수는 마리아가 왼편에 있으며 대부분 그리스도를 안은 채로 젓을 내어 오른편에 무릎을 꿇은 베르나르두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다. 바르샤바 국립미술관 소장의 베네치아노의 작품에 등은 약간 오래된 인상을 준다. 17세기의 프라도 미술관(Museo del Prado)의 알론조 카노(Alonso Cano)의 예는 베르나르두스 쪽이 크게 그려지고 마리아는 生身이 아니라 이미 벽에 붙여진 塑像인데, 젓의 선이 보기 좋게 그려져 金刀平羅宮의 그림 두루마리에 필적한다. 한편 15세기 말기의 플랑드르(Flandre)파의 작품 예는 마리아의 젓과 베르나르두스의 얼굴은 거의 동일한 높이이며, 그리스도의 머리 위를 넘어서 날아가는 형태로 약간 비스듬히 아래로 젓이 날아가고 있다. 마리아의 얼굴은 크게 강조되어 있다.

알 수 있었던 2·3가지의 예에서 마리아의 경우는 항상 왼편에 있었으므로, 그것이 고정화된 양식이며 좌우가 마음대로 변하는 마야의 수유도와 다른 것이 아닐까, 라고 제멋대로 확신하였는데, 서양 중세 기도의 삽화에 마리아가 오른편에 있으면서 높은 의자에 앉아 오른 쪽의 젓을 눌러 왼편에 무릎을 꿇은 베르나르두스에 수유하는 예가 있는 것을 인터넷 정보로 알았다. 역시 일은 단순하지 않은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 후 하이델베르크대학에 그림 두루마리 세미나에 갔을 때 멜라니 씨에게서 동료 중에

이 그림을 연구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도판집을 보았는데 엄청난 양의 마리아 수유도가 실려 있었다. 책은 삽화가 태반으로, 매 장마다 표제어나 단락이 바뀌는 컷트와 같은 곳에, 실물은 작은 그림일 것이지만, 도판집에서는 확대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다. 이에 의하면 대개 생각해 낼 수 있는 한의 모든 양자의 대면에서, 서거나 앉거나, 한쪽은 앉고 한쪽은 서거나, 좌우의 엇갈림은 애초에 통계를 내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종다채의 도상이 집성되어 있어,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특히 놀란 것은 마리아가 품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기가 아니라 이미 책형에 처한 상태의 화면도 있다는 점이었다. 아기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수유는 의미를 가지지만, 최후의 형벌에 처함 장면에서도 베르나르두스에게 젖을 날려 보내고 있는 도상은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유도의 우연한 일치는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이 오랫동안 품고 있는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단선적인 인과관계나 영향관계만으로 환원하여 읽어내려 하여도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계속 살아가는 한 어머니와 자식이라고 하는 영원불변의 숙명적인 과제는 계속되고, 모성과 생명의 극치인 수유 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한 젖의 본원적인 힘과 신비를 표출한 마야와 마리아 두 사람의 수유도를 이것저것 대비하면서 앞으로는 해독해 나가려 한다.

* 참고문헌

小峯和明, 『中世法會文芸論』, 笠間書院, 2009.

「摩耶とマリアの授乳」, 『図書』, 岩波書店, 2012.

조은애, 「韓日の「鹿女夫人」説話の展開に関する考察」, 『日語日文学研究』85輯・別冊, 한국일어일문학회, 2013.5.

増尾伸一郎, 「『日本霊異記』の〈母の甜き乳〉と『雜寶藏經』一南方熊楠「月下氷人」に導かれて」, 大正大学総合佛教研究所編, 『時空を超える生命ー〈いのち〉の意味を問いなおす』, 勉誠出版, 2013.11.5.

Gaburiel Hammer, “Bernhard von Clairvaux in der Buchmalerei”, 2009.

授乳の神話学：マヤとマリア

母なるもの—摩耶とマリア

前々から気になっていて、あちこちの講演などで話したり書いたりしているが、まだ解決のつかない問題がたくさんある。そのひとつが摩耶とマリアの授乳図の偶合である。いうまでもなく摩耶は釈迦の母、マリアはキリストの母として信仰を集める。

以前、パリのルーブル美術館でマリアが赤子のキリストを抱いた、いわゆる聖母子像がやたらと多いので、気になりだしてことごとく写真に撮ったことがある。カソリック教圏ではことにマリア信仰は圧倒的で、基層の女神信仰の系脈を思わずにはいられない。母と子の永遠の宿命のようなものがそこには深く刻まれているのだろう。人は誰しも母から生まれてくる、そこに自らの存在の始原を呼び覚まされるものがあるからであろう。とりわけ母と子のつながりを象徴するのが授乳である。乳は人が最初に口にするものであるし、生命の根源である。

摩耶の授乳

摩耶とマリアの授乳図の不思議な偶合は、授乳の相手がいずれも赤子ではないことだ。摩耶の相手は息子の釈迦ではあるものの、すでに悟りを開き、涅槃も遠くないほどの高齡である。摩耶は釈迦を産んで七日で亡くなり、天上界に再生していたから、成長後の釈迦を知ることがなかった。一方、マリアの相手は十二世紀の聖人ベルナルドゥス（ベルナール）である。なぜキリストではなくベルナルドゥスなのであろうか。まずは摩耶をめぐる説話からみていこう。

『今昔物語集』卷三第二話にいう。天上界に再生した摩耶を教化しようと、釈迦は弟子を連れて忉利天に昇る。歓喜園の波利質多羅樹（円生樹）の下で、文殊を使いにして摩耶を呼びに行かせる。すると摩耶は、釈迦の伝言を聞いただけで、乳が自然に出てきて、「もし私が娑婆世界で産んだ子でいらしたなら、この乳はあなたの口に入るでしょう」と言い、二つの乳をしばったところ、乳汁ははるかに飛んで釈迦の口に入ったという。摩耶はこれを見て喜び、世界が振動し、摩耶は釈迦のもとへ赴き、釈迦の説法を聞いて解脱できたという。釈迦はそのまま三ヶ月滞在するが、やがて涅槃に近づいたことを示し、下界に降りてゆく。涅槃にまつわる前段階の仏伝物語に欠かせない逸話となっている。

この話で気になるのは、摩耶と釈迦の位置関係、距離感である。摩耶は忉利天の宮殿にいて、その場で乳を飛ばすはずで、一方の釈迦は円生樹の下にいたわけだから、それなりの距離があり、摩耶の乳は長躯ほとばしって飛んでいったことになる。まさに乳が母と子を結びつけ、実の親子の証しや絆となる、劇的な物語の趣向である。摩耶が息子のことを意識したとたんに乳が自然に出てきたところに、母性の極みが生かされた話題といえる。

法会の場で

右の話の原拠は『摩訶摩耶經』にあり、仏伝經典を集成、部類した書『釈迦譜』にも引用される。日本では、法会の説法の權威であった安居院流の代表的な唱導書『言泉集』に出てくるから、法会の場によく取りあげられ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言泉集』は法会の説法で使われる小型の冊子本（「説草」とも）で、表紙には、「孝養句 為亡母」とあり、亡くなった母の追善供養などで読み上げられる願文の対句を抜き出したものや經典の一部の抄出からなる。法会の場に応じていろいろ使い回しされる簡便なマニュアルといえる。

「悲母之恩」として『心地観經』から母十徳なるものが引用され、その後に「仏果猶母子縁不忘文」として『摩訶摩耶經』から問題の一節がひかれる。内容は先の『今昔物語集』と変わらないが、『摩訶摩耶經』では文殊が摩耶のもとに赴き、釈迦の教化の意志を伝える際や、摩耶の乳を釈迦が飲んだことを確認して、釈迦のもとに喜び行く時に、偈が唱えられる。偈とは經典に出てくる詩であり、本来うたわれるもので、經文の内容を要約したり補足したり、増幅させる役割を持つ。うたの莊嚴な響きがよりドラマチックな高揚感を聞き手にもたらしに相違ない。聴衆は追善の対象である亡母と摩耶とをかさねて受け止め、感嘆や悲嘆の涙に誘われたであろう。

中世の唱導書のひとつ、『金玉要集』卷三「悲母事」にもこの話は出てくる。やはり「摩耶經云」として摩耶の授乳の部分が引用される。母と子のつながりを語る上で欠かせない故事となっていた。

乳の代償

乳房や授乳をめぐる話題はさかのぼって九世紀の仏教説話集として名高い『日本霊異記』にも少なからずみえる。大和のみやすなる者が母の扶養もせず、貸し付けた稲を母から厳しく取り立てようとした。気の毒がった周囲が援助するが、嘆き悲しんだ母は胸をはだけて乳房を出し、泣き泣き、

吾れまた乳の直（あたい）を徴（はた）らむ。母子の道、今日に絶ゆ。天知る、地知る、悲しきかな。痛きかな。

と訴える。息子は突如証文を焼き捨て、気が触れたようになり、家は火災にあい、最後に飢えこごえて死んだという（上・二三）。「お前を育てた乳の代価を払ってくれ」とまでいう母の絶叫は胸をうつものがある。この「乳の直」は子を育てた代価を払えということだが、それが乳に集約されるところに母と子の因縁の深さを知らせるものとなっているだろう。

先の『大乘心地観經』第三によれば、赤子が飲む母乳の量は「百八十斛」とされる。これが後述の百石賛嘆のうたにつながってくることは明らかであろう。

また、寂林という僧が見た夢に、太って裸の格好でふたつの乳房が腫れて竈のようにたれ、乳から膿が流れて苦しんでいる女に出会い、事情を尋ねると、邪淫のために幼児を捨てて乳を与

えなかった報いを受けているのだという。夢からさめてその家を探し当てるとはたしてその通りで、子供達は寂林を導師に供養を行い、母は救われたという（下・一六）

あるいは、息子が臨終を迎え、母の乳を飲めば命が延びるといい、母が飲ませると「ああ、母の甘い乳を捨てて私は死んでしまうのか」と言って息を引き取る（中・二）。

これら一連の説話は母と子をめぐる宿業や因縁がテーマとなっており、一方は母の業により、他方は子の悪業が報いを受ける型で、「甘き乳」がキーワードになるといえる。

法会場でこれらの説話は語られたに相違なく、聴衆の悲嘆や感嘆の涙を誘ったであろう。

母と子の宿業が乳に象徴され、人々の心深く浸透したことが想像できるのである。

また、同じ『日本霊異記』で防人の吉志火麻呂が妻会いたさに同行の母を殺しその服喪のためにお役免除を画策、母を殺そうとすると、大地が裂けて地中に堕ち、それを止めようとした母の手には息子の髪の毛が残ったという話（中・三）は、後世、安居院の唱導世界で語られ、叡山文庫本や大谷本『言泉集』にも語られるが、母が息子にいうせりふに、

胸には乳房あり。汝、百八十石の乳味を飲む処なり。腹は汝、九ヶ月、二百七十日の間、宿りし所なり。足といへば、汝を養はんが為に東西走り求めし足なり。手といへば、湯を沐し、頂を撫でし手なり。

そのような母をお前は どうして殺そうとするのか、と尋ねた、とある。先の『大乘心地観経』にいう赤子が飲む母乳の量が「百八十斛」であるのと共通する。原話の『日本霊異記』にはない部分であり、法会場でより聴衆をひきつけるために取り込まれたと考えられるであろう。

百石賛嘆（ももさかさんたん）

おそらく奈良時代には「百石賛嘆」といわれる母の恩を強調する歌謡がひろまっていたと思われるが、九世紀の『東大寺諷誦文稿』に、

百石云、八十石云、乳房之恩、一モ未報。（百石と云い、八十と云う、乳房の恩にまだひとつも報いず）（229～230行）

とある断片的な記事が文献上は古い。これは、『拾遺集』巻二十「哀傷」にみる、

百くさに八十くさそへて給ひてし乳房の報ひ今日ぞ我がする（一三四七）

といった類の歌をふまえることは間違いない。この歌は「百石に八十石をそえて母から賜った乳で育てていただいた母への恩返しを今日この場で致しましょう」といった内容で、行基菩薩の作とされる。母が子を育てるのに百八十石もの乳を費やしたという、母の恩を強調するもので、通称、「百石賛嘆」と呼ばれる（『日本歌謡集成』『古讃集』）。百八十石の典拠は『中陰経』や『大乘心地観経』と思われるが、法会場などでうたわれる歌としてひろまったであろう。作者は光明皇

後の説もあって一定しない。集団でうたわれる和讃などの歌謡とみなすべきで、行基や皇后作者説は後から付けられたのであろう。『日本歌謡集成』には、比叡山延暦寺や高野山の所伝も引かれており、宗派を問わずひろくうたわれていた。名古屋の真福寺には、「百石賛嘆盤色調中」という切り紙があり、歌の後に、口伝が引かれ、「行基菩薩偽作」とし、『五道受生経』の一節が引用され、「声明根本」「深々秘々究終」云々とある。「盤色調」は雅楽などの音階名であるから、そのような楽音にあわせて歌われる重要な声明としてあったことがうかがえる。

内親王に献上された仏教入門書の『三宝絵』下「灌仏」にもこの歌はみえるが、

百石に八十石添へてたまへてし 乳房の報い今日せずは いつか我がせん
年はをつ さよはへにつつ

とある。「今日ぞ我がする」の結句が、「今日せずはいつか我がせん」に変わり、さらに「年はをつ さよはへにつつ」というやや文意不通の語句が続く。「古讃集」にみる比叡山の例では、「今日せでは 何かはすべき 年も経ぬべし さ代も経ぬべし」(今日しなければ、いつできるだろうか。年もたってしまったらう、どんどん時も過ぎてしまうだろうよ)とあり、この方がわかりやすい。異伝がたくさん生ずるほど、それだけ流布してうたわれていたことを示すだろう。

『三宝絵』が仏事の年中行事の「灌仏会」にこの歌をあげているのは、他に例を見いだせないが、やはりその場でうたわれたからであろう。「灌仏会」は四月八日、釈迦の誕生を祝いその恩徳を慕う仏事で、寺院では「仏生会」と呼ばれるので、宮中や貴族社会で行われる儀礼を指すとされる。ここも宮中の事例を示すとみてよいだろう。大臣から宮廷の女房にいたるまで一人一人、誕生仏の作り物の山形に水をそそぐ、灌頂の所作が行われ、釈迦の生誕とその母摩耶夫人を賛嘆して、この歌をうたったのであろう。摩耶に捧げられたうたの可能性が高いと思われる。

子を育てる母の苦労や恩愛の深さを痛切に歌い込み、百八十石という具体的な数量で示すことで人々の心奥深く浸透していたといえる。これが当時の法会を媒介にひろまり、うたわれていたことを見のがせない。

『拾遺集』に載せられたのはそれだけひろまっていたからでもあり、行基の名を冠することで、歌謡ではなく和歌として格上げしようとした経緯を示すと考えられ、実際にそのように伝承されていたのであろう。

ちなみに、歌の「百石」は「ももさか」と読まれるが、「ももさく」「ももくさ」など様々な読み方があった。歌い継がれる過程で次第に意味もわからなくなったのであろうか。

『万葉集』巻十一「ももさかの舟かくり入る八占いさし母はとふともその名はのらじ」(二四一一)などに類する万葉的な歌語に相当すると思われる。

奇蹟の授乳

百石賛嘆は『東大寺諷誦文稿』にとどまらず、法会の唱導世界で定番だったことは、逐一引用しないが、その後の安居院の『言泉集』亡母帖、『澄憲作文集』三三「父母報恩」、『貞慶表白集』上・二「悲母三五日」をはじめ、『金玉要集』「悲母事」等々、中世の法会唱導の資料類に頻繁に

みえることから明らかである。西行に仮託された仏教説話の『撰集抄』四・一、九・四などにも、

十月身を苦しめ百八十万石の乳をすひて、朝夕胸の間をつつき、久しく膝の上にあそびて、

とみえ、母の恩をあらわす定型として習熟していたことが知られる。孝養を説く經典で東アジアにひろまった『父母恩重經』にも、

母乳を飲むを計るに、八斛四斗、千日提携して、塵垢を遮盖し、乾を推して湿に就かしめ、苦を嚙みて甘を吐く。

母乃ち児の為に身を屈めて下就し、両手を長〇し、不浄を拭除し、其の口を吹嘘して、乳を以後てこれに与ふ。乳を含み、母を看て、其の声を嬉々とす。母、児を見て喜び、児、母を見て喜ぶ。二情思想し、慈愛親重、情親の相念じたること、此に過ぐる莫し。

などとみえ、母と子の情愛の証しに乳が重要な仲立ちであることが強調される。ただし、ここでは、百八十万石が「八斛四斗」となっているが。

このような百石賛嘆の歌と密接するかどうかはさておき、授乳をめぐる奇譚ともいえるべきいくつかの話題があるので、みておこう。

『今昔物語集』巻一九第四三話では、女御の侍女だった女が若い頃は風流多情であったが、後にある家の乳母になり、育てた子が尊い僧になったことから、道心篤く、『法華經』を信奉し、いろいろな法会に聴聞していた。ある時、法会の帰りににわか雨にあってある屋敷の門に雨宿りしたところ、中の荒れた小屋に母と子が泣いている。訳を尋ねると、去年と今年続いて子を産んだが、養育できず途方に暮れているという。乳母は見るに見かねて子一人を預かることにする。しかし、預かってはみたものの、どうにもならず、日頃信奉している『法華經』に祈ったところ、二十五年も途絶えていた乳が突然張り出してきて、乳がほとばしり出て、ついに子を育て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

老婆が赤子を助けるために『法華經』に祈ったところ、感応があって、乳がほとばしり出たというわけで、一種の法華靈驗譚である。この説話は同類話がみられず、どこでどのように語られ、ひろまっていったのか、不明であるが、やはり法会の場での教説にふさわしい題材のように思われる。老婆が道心篤く、様々な法会に聴聞していたとされるのも、現場に参集する聴衆の関心をひきやすい設定であるし、法華靈驗にとどまらず、乳をめぐる話題として、百石賛嘆などにも接続して語られうる話だ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中国の孝子伝の代表『二十四孝』は、日本や東アジアにひろまったが、ここにも授乳の話題がみられる。日本のお伽草子『二十四孝』で示せば、唐夫人が自分の娘にではなく、姑に授乳するという話である。孝行もここにきわまるというか、子への授乳から老婆への授乳という屈折した反転行為であり、極端な例を提示することで一般的な徳目や教訓を説く定型とはいえるものの、一歩まちがえばグロテスクにも近いようなイロニーを感じさせるモチーフといえようか。あるいは、老婆は幼児の反転であるばかりか、老いが幼さに回帰していくことの象徴的な行為ともみな

せようか。

現実にはありえないことが説話の世界で語られるのは、そこに不如意な日常を生きる人々の思いが凝縮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現実には奇蹟が起きなくとも、奇蹟が起きたという説話こそが人々を元気づけ、勇気づけ、明日を生きる希望を植え付けたのである。行きにくい世をいかに生き抜くか、思い通りにならない現実はどう耐えて生きていくか、説話はそういう人々の心の桎梏を瞬時解き放つ大事な役割をはたしていた。霊驗や奇蹟の話譚をたんに荒唐無稽だとか、取るに足りないでっちあげの、嘘八百だと決めつけ、唾棄するような見方は人の生きる思いや願い、祈りの心意が見えていない、理解できていない、といわざるをえないだろう。だから、人はいつの時代・社会でも説話を必要としているのである。

乳を飛ばす夫人たち—蓮華夫人と鹿女夫人

母と子の証しが授乳ではたされる同じモチーフは、『今昔物語集』巻五第六話にも出てくる。般沙羅王の後が五百の卵を産んだために、恥じた後は密かに箱に入れて恒伽河（ガンジス川）に流してしまう。それを拾った隣国の王が持ち帰ると卵から五百の王子が生まれ、武勇にたけた若者に成長し、もとの国を攻める。城を包囲された般沙羅王は窮地に陥るが、後はすべて我が子に相違ないと事情を話し、高楼に登って五百の王子に向かって経緯を語り、親子の証明とばかり乳汁が五百の王子に向かって飛び走り、すべての口に入った。王子たちは真実を知って撤退、その後両国は親密になったという。

この話の原拠は『俱舎論記』とされるが、『雑宝蔵經』の蓮華夫人や鹿女夫人の話にも変形され、『六度集經』『経律異相』などにもひかれ、玄奘三蔵の『大唐西域記』にもみえる。

やはり乳汁が数百、千人の口に入ったというモチーフの異様さが注目を集めたのであろう。蓮華夫人と鹿女夫人の話はほとんど同じ話の異伝といえ、深山で鹿が仙人の尿を飲んで妊娠し、娘を産み、仙人が育てる。狩りに来た王が、彼女の足跡が蓮華になるのを追って行方をつきとめ、妃にめとるが、五百の卵を産んだため流され、成長して武人となり、攻めてくるが、夫人が乳汁を飛ばしてそれぞれの口に入り母子の証しを得る、というもので、鹿女夫人では子供は千人の数となる。乳が千の筋になってほとばしった、というのだから、すさまじいものがあるが、この種の話題が好まれ、さまざまに語り伝えられたことをうかがわせる。

日本では、『宝物集』巻一などにもみえ、何が宝物かの議論で子供こそ宝だとする説の例証としてあげられる。説話の概要にふれた後で、「般舍羅がかいごは、ついに母に帰し、安族国の商人はふたたび父を人になしき」云々と、ほとんど成語化したかたちで引用されている。前者にいう「かいご」は卵を意味し、『今昔物語集』と共通の話をさすとみて間違いない。『今昔物語集』では最初から五百の卵を産むが、『宝物集』では五百葉の蓮華で、その葉ごとに五百の卵があったとされる。后が高楼に登って因縁を説き、乳を飛ばす設定は同様に、物語のドラマ性が最もきわだつ山場ともいふべき場面で、聴衆や読者を引きつけたであろう。

後者は安息国の商人が父を助けた話であろうか。いずれにしても、成語のごとく要約されるほど、この話は法会などの場で語られていたことを示唆していよう。

これら般舍羅国の話題には『雜宝蔵經』にみる蓮華夫人や鹿女夫人のような鹿の尿を飲んで妊娠するモチーフはみられない。『今昔物語集』のこの話の前話（巻五・五）が波羅奈国の鹿母夫人の話題であり、いわば鹿にまつわる前半と授乳の後半を分離して別個の話として独立した形になっている。鹿母夫人の話は『報恩經』系とされる。これらが前後並んで配列されているところに何らかの機縁を思わせるものがあったからであろうか。

朝鮮半島の事例

これら一連の話題が朝鮮半島にも伝わっていたことを趙ウネ氏が指摘している。これによれば、初例は、十五世紀の朝鮮王朝の仏伝で初期の漢字ハングル刊本としても着目される『釈譜詳節』で、巻十一にみえる。釈迦が摩耶教化に天上界に赴いた話題にちなんで、二人の前生譚として忍辱太子の本生譚と鹿母夫人の説話が引かれる。これらは『報恩經』によるので、授乳譚はみられない。以下、一七二七年の「広法寺事蹟碑銘」、一八三七年の『平壤統誌』『雑誌』、一七六五年以前の『輿地図書』『古跡』、一八二〇年以後の『安州牧邑誌』などが紹介されるが、後半のモチーフをもつのは後者の二例である。いずれも「鹿足夫人」の名前になり、後者の二例はほぼ同様で、生まれた子供は十二人、授乳と同時に母子の証明になる鹿の足形が足袋と一致する足袋合わせのモチーフでも共通する。『輿地図書』では高麗、『安州牧邑誌』は高句麗とされるが、いずれも十二三川千野の地名起源譚になっている。

趙論文ではさらに、一九一九年の三輪環『伝説の朝鮮』や一九八四年の『韓国口碑文学大系』など、口頭伝承の例も検討されている。三輪著書は植民地時代に採録、日本語で刊行されたもので、三種類の異伝が紹介されている。それぞれ先にひいた前近代の文献に対応しており、詳細は省略するが、子供の数は七人、九人、十二人、千人とそれぞれで、授乳のモチーフがあるもの三例、鹿足や足袋合わせは二例、頭陀寺や合掌川、十二三千平野などの由来譚になり、戦争の相手国は中国が大半、後は東明王の妃とされるもの二例といった差異がみられる。

従来の韓国の研究では、朝鮮王朝時代の『釈譜詳節』を起点に、朝鮮半島の事例のみで検証されており、仏典そのものの多様な変容や日本の例が視野に入っていないことが趙論で指摘される。逆にみれば、日本でも柳田国男や早川孝太郎らによって、口承文芸面での「鹿と足袋」などのモチーフが着目されるものの、朝鮮半島の例は視野に入っていなかったわけで、東アジアへの視野のひろがり在今后さらにもとめられるであろう。

『釈迦の本地』の挿絵

ここで再び、摩耶の授乳に戻ると、日本の仏伝物語の代表作、お伽草子の『釈迦の本地』にも語られ、絵巻などに劇的に絵画化されるようになる。『釈迦の本地』では、忉利天に至った釈迦は須弥山頂上の円生樹から善法堂に入っていた。すでに摩耶は帝釈天の後となっていて、文殊の言上を受けて五百人の天人を従えて対面する。善法堂が対面の舞台であった。しかし、釈迦が弟子を連れて二十四人で来ていたため、摩耶はどれが我が子かわからないと言い、釈迦は乳を飛ばして口に入れたものがあなたの息子ですと応え、はたして乳汁が「白き糸を引きはへたるがごとく」

飛んで釈迦の口へ入ったという。原拠の『摩耶経』では、乳は「白蓮華」のごとしと形容され、摩耶が主体的に乳を飛ばすのに対して、『釈迦の本地』では、釈迦の方が主導権をとって摩耶に提言するかたちになる。

何より『釈迦の本地』では、諸本でこの場面がさまざまに絵画化されていて興味はつきない。すでに指摘したことがあるが、ここでもいくつか例示しておこう。問題は摩耶と釈迦の位置関係がどうなっているかで、両者が左右いずれのかたちで向き合っているか、高低差をつけるか否か、二人は立っているか座しているか等々の対比があることだ。たとえば、東洋文庫本や大英博物館の絵入り本などでは、ほとんど並行して対面、対座しているため、乳の糸が直線的に飛んでいるのに対して新出の立教大学本では、両者のいる建物が分かれていて、摩耶がより高い所から乳を飛ばし、釈迦のもとに届く格好で、乳の線も太く、まるでホースの放水のように描かれている。乳汁がはっきり分かるように描く場合と曖昧なものとがあり、立教本はより親子の証明としての表出が意識化され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

授乳の図像学

この場面で最も劇的な構図は、やはり前に紹介した金刀平羅宮の絵巻であろう。左手のやや高い位置で、しかも雲に乗っていて、右手の下方にいる釈迦めがけて乳汁が飛んでいく。その乳汁の白い線がゆるやかな曲線を描き、みごとに釈迦の口に入るさまがあざやかに刻み込まれている。釈迦たちは立ち姿である。大英博物館の絵巻も左右逆の構図になるが、やはり摩耶は雲に乗って右手上方から左手下方に座している釈迦に向かっていく。釈迦達は座っている。立ち姿の方が劇的な効果をもたらしやすい印象を受ける。

釈迦と摩耶の位置が右か左かは、画面を観る者の視点が釈迦側か摩耶側かの差異につながる。絵巻は必ず右から左へ巻いていくから、観者の視点は右から左へ動き、おのずと右側にいる人物からの視点にかさなる。要するに文章の縦書きに対応している。右手に釈迦がいれば、観者は釈迦の視点に立って左手から乳汁が飛んでくるのをどう受け止めるか、という見方になるし、摩耶が右手にいれば、観者は乳汁がどこへ飛んでいくかを見定める、という見方になる。とはいえ、絵を見る視点は自在に動かせるから、二人の左右の位置関係がどうであろうと、あらためて摩耶の乳の出たところから釈迦の口に入るところまでを確認する、乳汁の行方をたどり直す行為は意識しなくても自然になされるであろう。

何より乳房をむき出しにした摩耶の姿がこの物語ではごく自然に絵画化され、それを観ながら物語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釈迦の本地』が数ある仏伝のなかでもとりわけ多く制作されたのも、こうした絵に対する関心の高さに要因があるだろう。

これに対して、中国の『釈氏源流』では、「為母説法」の段があり、『摩耶経』の一節を引いているものの、挿絵の図版の通りで、乳が飛ぶような構図はまったく見られない。画面中央左側で釈迦が円生樹下で結跏趺坐して光を放ち、右下で摩耶が立って釈迦の使いの文殊の言上を聞く構図である。摩耶の授乳の絵画化はタブーとなっているようで、『釈迦の本地』との差異はおおきい。これは物語の内容や筋立てそのものが享受にあわせて自在に変わっていく日本の仏伝と、仏

典の規範から決して逸脱しない中国や朝鮮の伝説との対比にそのまま対応しているといえよう。

マリアの授乳

乳を飛ばす夫人のモチーフはマリアも同じである。ただ、相手はキリストではなく、聖ベルナルドゥスであった。彼は十二世紀後半のフランス生まれのシトー派の神学者で、簡素を重んじ、教会分裂騒動を収束させるなど教会政治に力を発揮し、十字軍遠征に対してもかかわりが深かった。彼は熱烈なマリア崇拝者でマリアを幻視し、マリアからしたたる乳が唇をぬらして霊力を得た、という逸話があり、十三世紀になると、絵画化されるようになる。「聖ベルナルドゥスの幻視」と題される絵画が制作されるが、同時に授乳図も描かれるようになる。これも時代をつらぬいて描き続けられたようだ。

作例がどの程度残されているのか見当もつかないが、知り得たいくつかの例で見えていくと、多くはマリアが左手にいて、ほとんどキリストを抱いたまま、乳を出し、右手にひざまずいたベルナルドゥスの口に入っている。ワルシャワ国立美術館蔵のオレンツォ・ヴェネツィアーノの作例などは、やや古い印象を与える。十七世紀のプラド美術館蔵のアロンソ・カノの例はペロナルドゥスの方が大きく描かれ、マリアは生身ではなくもはや壁につけられた塑像であるが、乳汁の線がみごとに描かれ、金刀平羅宮の絵巻に匹敵する。一方、十五世紀末期のフランドル派の作例はマリアの乳とベルナルドゥスの顔はほぼ同一の高さで、キリストの頭上を飛び越すかたちでやや斜め下に乳が飛んでいる。マリアの顔はおおきく強調されている。

二、三の知り得た例から、マリアの場合は常に左側にいるため、それが固定化された様式で、左右自在に変わる摩耶の授乳図と異なるのでは、と勝手に思いこんでいたのだが、西洋中世の祈祷書の挿絵に、マリアが右側にいて高い椅子に座り、右手の乳をおさえて左側にひざまずくベルナルドゥスに授乳する例があることをインターネット情報で知った。やはりことは単純ではないことを再認識させられた。

その後、ハイデルベルグ大学に絵巻のセミナーに赴いた折り、メラニー氏より、同僚にこの絵を研究している先生がいることを聞いて、その図版集を見せていただいたところ、おびただしいマリアの授乳図が掲載されていた。書物の挿絵が大半で、章ごとの見出しや段落替えのカット風の箇所でも実物は小さい絵であろうが、図版集では拡大されていてわかりやすい。これによれば、おおそ思いつく限りのあらゆる両者の対面で、立ったり座ったり、一方は座り一方が立ったり、左右の入れ違いはもとよりほとんど統計をとる意味があるのかどうか分からないほど多彩な図像が集成されていて、めくるめく思いがした。

特に驚かされたのは、マリアが抱いているキリストが赤子ではなく、すでに磔にされた状態の画面もあることだった。赤子のキリストを抱いているがゆえにマリアの授乳は意味を持つはずだが、最後の磔にされた場面でもベルナルドゥスに乳を飛ばしている図様は何とも異様な感じを与えずにはおかないものがあった。

このような授乳図の偶合ははたして偶然か、あるいは何らかの影響関係があるのか、それが

長年抱えている難問である。しかし、一方から他方への単線的な因果関係や影響関係だけに還元して読もうとしてもあまり生産的ではないだろう。人類が生き続ける限り、母と子という永遠不変の宿命的な課題は続くし、母性と生命のきわみである授乳の営みは続くだろう。そうした乳の本源的な力や神秘を表出した摩耶とマリア二人の授乳図を、あれこれ対比させながら、今後も読み解いていければと思う。

* 参考文献

小峯和明 『中世法会文芸論』 笠間書院 2009年

「摩耶とマリアの授乳」『図書』 岩波書店 2012年

趙 恩ネ 「韓日の「鹿女夫人」説話の展開に関する考察」『日語日文学研究』85輯・別冊
韓国日語日文学会 2013年5月

増尾伸一郎 「『日本霊異記』の〈母の甜き乳〉と『雑宝蔵経』—南方熊楠「月下氷人」に導かれて」
大正大学総合仏教研究所編 『時空を超える生命—いのちの意味を問いなおす』 勉誠出版 2013年11月5日

Gaburiel Hammer “Bernhard von Clairvaux in der Buchmalerei” 2009年